

전통예술공연 정수 '전주 가·무·악展'

시, 30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전주한옥마을 내 우리놀이터 마루달서 전통국악 상설공연 진행

깊어가는 가을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에서 대한민국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맞출 수 있는 상설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5시 전주한옥마을 내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한국전통의 가(歌), 무(舞), 악(樂)으로 구성된 전통국악 상설공연인 '전주 가·무·악展'을 진행한다

이날 전주대시습장에서 8회에 걸쳐 진행된 가·무·악 공연의 장소를 옮겨 선보이는 것.

이번 공연은 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동시통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무·악 특징을 설명하며 연주를 감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즉석 인터뷰와 귀명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내·외국인 모두 즐길 수 있는 한바탕 공연으로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상설공연은 10월 공연에 이어 오는 11월 6일로 예정된 대시습에서의 폐막공연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 간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대시습 상설공연에는 전주 시민과 내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 공연을 즐겼다.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공연장을 찾은 외국인 부부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이미 판소리 완창을 듣고 왔을 정도로 한국 전통음악에 빠졌다"며 객석 맨 앞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공연을 관람한 독일인 드럼연주가 부부도 리나라 악기에 관해 묻고, 현장에서 즉흥으로 타연주를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상설공연을 통해 전주 본연의 전통문화예술 발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국가 관광 거점도시 선정에 걸맞는 내·외국인을 위한 공연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설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통신사 협동조합(063-282-2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통국악 상설공연 '전주 가·무·악展'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 공연

국립무형유산원, 7-8일 멕시코 대표 무형유산 마리아치 공연 진행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7~8일 이틀 간 열수마루 대공연장에서 멕시코 대표 무형유산 '마리아치' 악단 초청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멕시코 수교 60주년을 맞아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리아치 그룹 '마리아치 바르가스 데 테칼리틀란(Mariachi Vargas de Tecalitlan)'이 출연한다.

공연 세부 내용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곡들로 구성됐다. 영화 '코코'에서도 등장한 죽음에 관한 노래 '라 요로나(La Llorona)', 한국에서 조영남이 '제비'로 소개해 유명한 '라스 골론드리나스(Las Golondrinas)' 아픈 사랑의 노래로 친숙한 '베사메 무초(Besame mucho)'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리랑'까지 다양한 마리아치 음악을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Hola, Mariachi'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한멕시코대사관이 후원한다. 공연과 부대행사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063-280-1500, 1501)로 행사 시작 전날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전북 들소리 겨루기대회' 성황리 개최

대상 개인부 순창군 최재복·단체부 김제 김민경외애및들노래보존회 수상

전라북도 민속예술진흥회연합회(회장 최무연)와 순창군 민속예술진흥회(회장 김병호)가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와 순창군, 순창군의회 등이 후원한 '제1회 전라북도 들소리 겨루기대회'가 지난 3일 순창농요극과들소리전수관의 공연장에서 약 4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겨루기 대회 공연에 앞선 개회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신정아 순창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과 각 사회단체장 등 내빈이 참석해 대회 참가자들의 기운을 북돋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축사를 통해 "순창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들소리 겨루기대회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치러지면서 민속예술이 진흥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겨루기 대회는 순창농요극과들소리보존회, 전주 기잡놀이보존회 등 전라북도 민속예술진흥회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14개 시군의 들소리 관련 단체와 개인 20개 팀이 참가했다.

경연 결과는 △대상(도지사상) 개인부 순창군 최재복, 단체부 김제 김민경외애및들노래보존회 △단체부 최우수상(순창군수상) 익산 삼기농요보존회 이명배 외 28명 △개인부 최우수상(순창군의회 의장상) 순창군 김학준 △우수상(전라북도 민속예술진흥회연합회 의장상) 개인부 김제시 박보현, 박경숙, 단체부 전주 기잡



'제1회 전라북도 들소리 겨루기대회'가 지난 3일 순창농요극과들소리전수관 야외 공연장에서 약 4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놀이보존회, 군산 육구들노래보존회 △장려상(순창군 민속예술진흥회 의장상) 개인부 익산시 김영장, 순창군 김해정, 전주시 박순성, 단체부 무주 민속예술진흥회, 완주 민속예술진흥회, 익산 삼기농요보존회 오명순 외 5명이 각각 수상했다.

전라북도 민속예술진흥회연합회 최무연 회장은 "농촌의 농민들에게 녹아있는 공동체 문화의 전승과 활성화를 통한 민속예술을 복원하는 데 전북의 들소리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고는 신념을 가지고, 보존전승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9~29일 공휴일·주말 '명품 태권도 시범공연' 선보인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9~29일까지 매주 공휴일 및 주말 옥외극장에서 '2022년 명품 태권도 시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공연은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과 예술적 요소를 접목시킨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친다.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첫 번째 프로그램 '오리차차 태권도'는 태권도 품새를 기본으로 격파와 발차기, 태권체조 등을 신나는 케이팝 음악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 영웅 시리즈 '무혼(武神)'은 칼싸움, 장봉, 호신술 등 역동적이고 현란한 기술을 고난이도의 동작과 함께 선보여 무도정신을 엿볼 수 있게 꾸며진다.

세 번째 프로그램 태권소리극 '태권! 놀부!'는 고전소설 흥부전을 각색한 공연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태권도 기술인 품새, 겨루기, 격파 등을 무대 위에 올려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홍진근 관장은 "가을 날 가족들과 함께 관람객들이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시범공연을 준비했다"며, "우리 전통 무술의 우수성과 종람예술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다·르하미술관, 지역 작가지원 3차 전시

정읍시(정읍시립미술관)가 운영하는 다·르하미술관이 오는 10일 오후 마지막 지역 작가 지원 전시(3차)를 선보인다.

다·르하미술관은 컨테이너에 유리를 설치해 안이 흰회 들여다보이도록 만들어진 작은 미술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지난 5월 1차, 8월 2차 전시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작가지원 전시에서는 송정숙, 오은식 작가의 작품 14점을 만나볼 수 있다.

신태인 미술관에서는 송정숙 작가의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한국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송 작가는 기품 있고 담백한 수묵의 표현과 화려한 듯 수려한 색채의 조화가 어우러진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경

이로운 자연에 고마움을 속삭이며, 포근한 마음의 휴식을 담아 행복을 나누길 소망한다.

수성동 미술관에서는 오은식 작가의 '미술관에 뜬 달'전이 진행된다. 전시회에서는 애초에 동글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두 개의 큰 발(鉢)이 만나 새로운 공간을 품고 있는 작가만의 달항아리를 만나 볼 수 있다. 이 공간에는 누군가 바라봐 주길 기다려온 기다림과 좀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해 동그랗고 너럭하게 만들고 싶은 작가의 열정이 담겨있다.

이번 전시는 11월 30일까지 휴관일 없이 진행되며 신태인읍과 수성동 2개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단, 주간에는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막기 위해 신태인은 16시부터 22시까지 수성은 17시부터 22시까지 야간에만 감상할 수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강좌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일반인들이 국악을 쉽게 접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열리는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국악강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오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개설과목은 민요와 판소리로, 민요반은 매주

화요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김수영 단원이 지도하며, 흥타령,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을 수학과, 매주 목요일에는 창극단 이지숙 단원의 지도로 '흥보가 중 놀보 심술대목'과 '심청가 중 백덕이네 행상대목'을 배운다.

접수기간은 11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만18세 이상 일반인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4회 남원 흥부제 품바 명인전

10월 9일(일) 오후 12시 30분 ~ 4시 30분
남원 사랑의 광장 무대(남원시 어연동 37-19)



◆ 명품 품바열전 출연진



김광범



서봉식



영심이



한심해

주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